▣ 이스라엘, 13 억불 화력 발전소 입찰 현장

○ 이스라엘 전력공사(IEC)는 텔아비브 남쪽 약 50km 위치에 있는 아쉬켈론에서 가동 중인 4 기의 화력발전소에 6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 2 기를 추가 건설을 추진 중임. D-Project 로 명명된 이 공사는 2009 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총 소요 예산은 13 억불로 예상되고 있음.

○ 금년 초부터 발전설비의 골격인 발전기와 보일러 입찰 공고가 시작됨으로써 추가 입찰에 대비하여 주요 조달 품목의 바이어들이 납품을 위한 해외 공급선 확보에 착수했음. 일상적인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품목이 기존 조달 채널을 통해 확보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정규적인 조달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공급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현지 기업들의 무역관 접촉에서도 감지되고 있음. 즉, 일부 바이어가 이미 무역관을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로 한국의 밸브/펌프 제조업체를 물어오기도 했음. 공급선 문의 자체를 비즈니스 기밀로 간주하는 에이전트들은 구체적인 목적은 밝히지 않고 연초부터 발전소 건설 관련된 공급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음.

○ 이에 무역관은 지난 3 월말 이스라엘 전력공사 D-Project 의 최고 책임자인 실비어 비티니그 부사장을 만나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우리 한국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

○ D-Project 조달물자 입찰을 관장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및 규모를 추정해 보았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기업 입찰 참여 가능 분야별 입찰 규모(추정) >

참여 가능 분야	입찰 규모 추정치
보일러 2 기	1~2 억 달러
펌프류	약 3 백만 달러
밸브류	약 1 백만 달러
Transformer	약 5 백만불
소형 크레인	약 2 백만불
파이프류	약 5 백만불
10kv 내외의 전선류	약 1 천만불
스위치 기어	국산은 IEC 요청 사양 상이
직경 50 미터, 높이 250 미터 크기의 굴뚝 시공	

(자료원 : 현지 KOTRA 무역관 자체조사)

○ 더욱이 D-Project 가 우리나라 발전소를 모델로 삼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 전력공사는 지난 2 월에 D-Project 핵심 멤버들을 한국에 보내어 최근 건설된 화력발전소들을 시찰한 바 있음.

○ 국내 발전소의 설계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공사의 첨단설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설계도 구입을 추진 중임. 이러한 내용은 이미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이번 프로젝트 진출 여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문의처 : 텔아비브무역관 강영수 yskang@kotra.or.kr)